

“내년 광주 수영마스터즈로 오세요”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제18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아시아와 미국·유럽 등 전 세계 마스터즈 수영동호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해외홍보 본격화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일본 나고야 스포츠플라자에서 아시아수영연맹 마스터즈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광주수영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제18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아시아와 미국·유럽 등 전 세계 마스터즈 수영동호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해외홍보가 본격화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일본 나고야 가이시 아레나 수영장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에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참여해 일 본 정부와 아시아 수영협회 간부 면담,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개최도시 광주와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적극 알렸다.

전세계 마스터즈 동호인 참여 해외홍보 본격화 조직위, 제1회 아시아마스터즈서 광주대회 소개 日 스포츠청 장관·수영협회 고위 인사 등 면담

조 사무총장이 “국제수영연맹(FINA)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대회 준비상황 등을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스키 장관은 “일본 마스터즈협회 및 수영연맹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일본 마스터즈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2021년 차기 대회 개최가 후쿠오카”라면서 “광주와 후쿠오카, 한국과 일본이 2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를 성공한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스키 장관은 1986년 서울아시아안계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일본 수영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땀. 또 올해 초 열린 2018평창올림픽에는 일본 스포츠 총책임자로서 성화 봉송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스포츠, 특히 수영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일본은 협회에 등록된 마스터즈 동호인만 4만 7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수영 저변이 탄탄하다”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상호 협력이 세계 수영대회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12일 오후 나고야 스포츠플라자에서 아시아수영연맹 마스터즈 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광주수영대회와 마스터즈대회 관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홍보영상 상영 등을 통해 내년 광주 마스터즈 대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직위는 또 경기장인 가이시 아레나 수영장 실내와 시상식이 열리는 광장에 홍보부스를 각각 설치해 광주·수영대회 홍보영상 상영과 리플릿·기념품 등을 나눠주며 내년 광주대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상황과 주변 관광지, 대표적 먹거리, 교통·숙박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2019광주세계수영대회는 내년 7월12일부터 28일까지(17일간),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는 8월5일부터 8월18일까지(14일간) 200여개 국 1만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경영·다이빙·아티스틱수영·수구·하이다이빙·오픈워터수영 등 6개 종목이 남부대, 열주체육관, 조산대, 여·엑스포 해양공원 등에서 각각 열린다.

조인호 기자

올스타전 /이/모/저/모/

○...강백호, 투수로 나서 시속 150km 강속구 평평



14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2018 KBO 리그 올스타전 나눔올스타와 드림올스타의 경기, 6회초 드림올스타 강백호가 마운드에 올라 공을 뿌리고 있다.

올 시즌 신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스타로 선정된 KT 위즈의 ‘슈퍼 투키’ 강백호(19)가 올스타전에서 투수로 등장했다. 강백호는 14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올스타전에서 6회초 드림올스타 6번째 투수로 등판, %이

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KT 지명을 받은 강백호는 서울고 시절 투타를 겸비한 선수로 주목을 받았다. 우투좌타인 강백호는 장타력을 갖추고 있는 포수로 활약했으며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수로도 시속 140km 중후반대의 빠른 볼을 구사한 강백호는 ‘팔방미인’으로 꼽혔다. 지명 직후에도 그의 투타 겸업에 고려했던 KT는 강백호가 타자에 전념하도록 했다. 올 시즌 주전 외야수로 활약한 강백호는 타율 0.296(301타수 89안타) 16홈런 49타점으로 활약했다. 전반기에 이미 고졸 신인으로는 5번째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냈다. 올 시즌 신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스타전 무대를 밟은 강백호는 별들의 잔치에서 투타 겸업에 나섰다. 6회초 드림 올스타의 마운드에 오른 것은 다름아닌 강백호였다. 올스타전에서 타자가 투수로 등판한 것은 1985년 서군 올스타로 나선 헤태 타이거즈의 김성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첫 타자 오지환(IG 트윈스)을 상대한 강백호는 최고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속구를 평평 뿌렸다. 결국 변화구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어 오지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데타로 나선 이용규(한화 이글스)를 상대한 강백호는 볼 3개를 연달아 던졌지만 풀카운트로 승부를 끌고간 뒤 삼진을 추가했다. 강백호는 후속타자 김현수 타석 때 박차(구두산 베어스)에 마운드를 넘기고 자신이 시즌 내내 서던 포지션인 좌익수 자리로 달려나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강백호는 6회말 무사 1, 3루의 찬스에서 처음으로 올스타전 타석에 들어섰다. 결과는 아쉽게도 삼진이었다. 강백호는 7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내야안타를 쳐 올스타전 첫 안타를 신고했다.

○...오토바이 헬멧 쓰고 나선 노수광 ‘내가 노토바이!’



14일 오후 울산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2018 KBO리그 올스타전 나눔올스타와 드림올스타의 경기, 2회말 2사 2루에서 드림올스타 노수광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타석에 들어서고 있다.

SK 외야수 노수광(28)은 올스타전 막차를 탔다. 드림 올스타 외야수 부문 베스트 선수로 선정된 두산 박건우가 원순 겸지연조직염으로 인해 올스타전에 불참했고, 노수광이 대체자로 선발됐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출전한 적이 있지만, 1군 올스타전 무대는 처음이다.

노수광은 “대체 선수로라도 뛰어서 다행이다. 그것도 경기 중 이이백을 들었는데 놀라기도 하고, 김태형 감독님께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두산 김태형 감독님이 뽑은 것이라고 들었다.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궁금하다”며 “뽀아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전했다. 대체 선수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았지만, 드림 올스타 8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노수광은 첫 타석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자신의 별명인 ‘노토바이’를 의식한 퍼포먼스다. 노수광은 타격 준비를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헬멧 앞 고글이 떨어져 관중석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30도 넘는 기온에 땀땀... 아이고, 덥다 더워



14일 올스타전이 열린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그라운드에 누워 더위를 표현하고 있는 KT 위즈의 마스크 박도리와 돌봐주는 시동을 하는 SK 와이번스 마스크트 야테나.

올스타전이 열린 울산 문수야구장은 땀땀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날 30도를 넘나드는 기온에 햇볕도 쨍쨍했다. 올스타전을 찾은 관중들은 모두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느라 정신이 없었다. 문수야구장은 인조잔디가 깔려있어 그라운드도 나가면 한층 덥다. 팬 사인회에 참석한 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인을 받아야 했다. IG 트윈스의 베테랑 타자 박용택(39)은 자리에 앉으면서 “어휴 더워”라며 혀를 내둘렀다. IG 포수 유강남(26)은 “상상 이상으로 덥다”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K 와이번스 포수 이재원(30)은 “팬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덥네요”라고 말했다. 롯데의 거포 이대호(36)도 “좋은 시설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팬들도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 말했다. 10개 구단 마스크트 복장을 차례입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터였다. KT 위즈의 빅포리 복장을 한 직원은 팬 사인회 도중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이며 더위를 호소하기도 했다. SK 마스크트 야테나가 다가와 살펴보는 척을 하며 장난을 쳤다.

‘3출루’ 추신수, 50G 연속 출루...베이브 루스와 타이 기록

역대 메이저 최장 기록 1949년 테드 윌리엄스 84경기

‘출루 머신’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50경기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 베이브 루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추신수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2타수 1안타 2볼넷을 기록했다. 이날 세 차례의 출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1923년 베이브 루스가 기록한 50경기 연속 출루와 타이 기록을 이뤘다. 역대 메이저리그 이 부문 최장 기록은 테드 윌리엄스가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인 1949년 7월 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부터 9월 27일 워싱턴 내셔널스전까지 이어간 84경기다. 1회초 선두타자로 나온 추신수는 볼티모어 선발 에프리 리베스를 상대로 6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냈다. 추신수는 3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와 리베스를 상대로 6구 만에 볼넷을 얻어냈다. 5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8회 선두타자로 나와 마이클 기브스의 95마일(153km)짜리 직구를 공략해 좌전안타를 만들어냈다. 추신수는 세 차례의 출루에도 득점에는 실패했다. 안타 1개를 추가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9에서 0.290으로 소폭 올랐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선전에도 0-1로 석패했다.



조인호 기자



독일 꺾은 한국, 러시아월드컵 명장면 2위 뽑혀

美 야후 스포츠 선정...1위는 일본 vs 벨기에 16강전

‘세계 첩보인’ 독일을 쓰러뜨린 태극전사들의 후끈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명장면 2위로 뽑혔다. 미국 야후 스포츠는 15일(한국시간) 러시아월드컵 명장면 18개를 선정했다. 한국-독일전은 전체 2위에 랭크됐다. 한국은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독일을 2-0으로 꺾었다. 야후 스포츠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한국이 VAR(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프사이드 선언을 뒤집고 득점에 성공했다.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마저 공격수로 변신했지만 손흥민이 빈 골문에 두 번째 골을 넣었다”고

되였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지난 대회 우승팀인 독일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 역시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은 최초의 아시아팀으로 자존심을 세웠다. 실리를 챙긴 팀은 멕시코였다. 스웨덴에 0-3으로 패해 탈락 위기에 몰렸던 멕시코는 한국이 독일을 잡는 계획이 없던 시나리오 덕분에 토너먼트 무대를 밟았다. 전체 1위는 일본과의 16강전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벨기에에게 돌아갔다. 벨기에에는 후반 초반 두 골을 헌납했지만 무서운 뒷심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후반 추가 시간 나온 세 번째 골은 역습의 정석을 보여줬다. 탈락으로 귀결됐지만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2차전 후반 49분 독일을 구한 토니 크루스(레알 마드리드)의 역전골과 잉글랜드와의 8강 연전전에서 나온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의 득점이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을 월드컵에서 지운 벨기에 골키퍼 티보 쿠루부아(첼시)의 선방(5위), 아르헨티나의 조별리그 탈락을 막은 마르코스 로호(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득점(6위), 코소보 태생들을 주축으로 세르비아 격파에 앞장선 스위스 대표팀(7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잉글랜드전 ‘쌌기골’ 아자르 벨기에 축구 역사 다시 썼다

에덴 아자르(27·첼시)가 ‘황금 세대’ 벨기에의 주장으로 치른 국제축구연맹(FIFA) 2018 러시아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벨기에는 14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3~4위전에서 후반 37분 아자르의 쌌기골로 숙적 잉글랜드를 2-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벨기에는 1988년 멕시코 대회 4위를 넘어선 뒤 월드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아자르는 앙투안 토틀레 최고 평점인 8.5를 받았다. 아자르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벨기에에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는 첫 경기인 파나마전에서 로멜루 루카쿠의 골을 도운 데 이어 튀니지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벨기에의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아자르의 활약은 팀이 위기일 때 더욱 빛났다. 그는 일본과의 16강전에서 벨기에가 1-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루안 펠라니의 헤딩골을 도왔다. 아자르는 16강전, 8강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추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아자르는 이번 대회서 3골 2도움으로 총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해리 케인(6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에 해당하는

10개 구단 마스크트 복장을 차례입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터였다. KT 위즈의 빅포리 복장을 한 직원은 팬 사인회 도중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이며 더위를 호소하기도 했다. SK 마스크트 야테나가 다가와 살펴보는 척을 하며 장난을 쳤다.